

5

にんしんとうによびょう 妊娠糖尿病 (임신성당뇨병)



妊娠中に血糖値がたかくなって、糖尿病にちかい状態と判断されたとき、妊娠糖尿病(GDM)と診断されます。ママの体は、赤ちゃんに糖を送ろうとしすぎて、血糖が高い状態になってしまいます。そのため、妊娠中に血糖をコントロールしないと赤ちゃんが大きくなりすぎたり、また、赤ちゃんが生まれるとすぐに血糖が低くなって、発作をおこしたりします。

もともと糖尿病ではなかった人が、妊娠して血糖値が基準値をこえた場合と、妊娠24週ごろのスクリーニング検査で異常値をしめして、75gOGTT という検査でも血糖値が基準値をこえた場合に、GDMと診断されます。75gOGTTの方法は、朝から何もたべずに病院にいき、ブドウ糖をのんで検査をします。のむ前、のんで1時間後、2時間後と、3回採血をされます。

Q: 体の中で何がおこるの?

A: 妊娠糖尿病は自分で感じる症状があまりありません。しかし、ママの血糖がたかくなると赤ちゃんも血糖がたかくなり、いろいろな悪い影響が出ます。

- ママへの影響: 妊娠高血圧症候群(HDP)、羊水がふえることにもなる切迫早産、産後の糖尿病など
- 赤ちゃんへの影響: 流産、先天奇形、巨大児、心臓への悪影響、生まれたあとの低血糖、黄疸、死亡など

Q: どんな治療をするの?

A: 妊娠期間を通して、血糖が高くないようにします。はじめは、食事を4~6回にわけてたべるようにしますが、それでも血糖がたかい場合は、注射でインスリンを使用します。とくに妊娠後半期は、体重が1週間で300g以上ふえ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多くの場合、出産のあとにママの血糖は正常にもどりますが、将来的に糖尿病になりやすかったり、そのまま糖尿病になってしまったりすることもあります。

임신중에 혈당치가 높아져 당뇨병 증상이라 판단되면 임신성 당뇨병(GDM)이라고 진단합니다. 산모의 몸이 아기에게 당을 너무 많이 보내려 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중에 혈당을 조절하지 않으면 아기가 너무 커지거나 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혈당이 낮아져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원래 당뇨병이 아니었던 사람이 임신을 하고 혈당치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와, 임신 24 주경에 스크리닝 테스트(선별검사)에서 이상치를 나타내고, 75gOGTT 라는 검사에서도 혈당치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 GDM 이라 판단합니다. 75gOGTT 방법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서 포도당을 먹고 검사를 합니다. 먹기전, 먹고 1 시간후, 2 시간후, 이렇게 3 번 채혈을 합니다.

Q: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

A: 임신성 당뇨병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혈당이 높아지면 태아의 혈당도 높아지고 여러가지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 임신고혈압증후군, 양수가 많아짐에 따라 생기는 절박조산, 산후 당뇨병 등.
-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 유산, 선천성 기형, 거대아, 심장에 악영향, 태어난 후의 저혈당, 황달, 사망 등.

Q: 어떤 치료를 받는가?

A: 임신 기간중에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4~6 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그래도 혈당이 높을 경우는 주사로 인슐린을 사용합니다. 특히 임신 후반기에는 체중이 1 주일에 300g 이상 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개의 경우 출산후 산모의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나중에 당뇨병에 쉽게 걸리거나 그대로 당뇨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